

대한민국 형법학계의 큰 어른

형법 행위론 정립



김 종 원 (金 鐘 源) 박사님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 성균관대 명예교수)

■ 공적사항

김종원 박사님은 대한민국 원로 형법학자로서 독일과 일본의 형법이론을 참고하면서 우리 형법전에 맞는 해석론의 연구를 주로 하셨고(김종원 「목적적 행위론과 형법이론」 2015년 참조), 1988년부터 87년까지 10년간 한국형사법학회 회장으로서 재임하시면서, 학회 편 「형법총론」(상, 1981년)(하, 1984년) 2권을 출간하셨으며, 1985년부터 1992년까지 형법초안이 완성되기까지 법무부 형사법 개정 특별심의회 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형법 개정을 주도하시는 등 형법개정의 주역으로 활동하셨음.

교수님의 <형법학자로서> 공적을 잠깐 소개해 올리면

먼저 1950년대의 후반과 1960년대에 걸쳐서 독일 한자인 Hans Wezel의 <목적적 행위론>에 관한 소개·번역에 힘쓰셨음. 이 이론은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객관적인 것은 위법성에, 주관적인 것은 책임에로」의 원칙이 <주관적 불법요소론>과 <규범적 책임론>의 대두로 무너진 것을, <목적적 행위론>이 모순없는 형법체계의 수립을 위한 초석이 되는 것으로 평가받게 되었음.

1963년에 발표한 「형법 제27조와 미수범」에서 우리 형법 제27조가 규정하는 바는 <불능미수>란 점과 이것과 (협의의) 장애미수와 그리고 중지 미수와의 관계를 삼각형의 그림으로 밝히셨음.

1970년대에는 「범죄공동설과 행위공동설」에 관하여는 후자의 입장을 취하면서 <범죄구성적 행위>의 공동이라는 점을 밝혀서 <범죄구성요건적 행위공동설>이라고 이름지었고, 또 「공범의 종속성」에 관하여는 <최소종속형태>를 취하면서 <범죄구성요건가담설>을 주장했는데, 이상을 종합하여 「공동정범·교사범 및 종범은 각자 그의 범죄구성요건의 단계에서 구별된다」와 「공동정범·교사범 및 종범은 각자 그의 범죄성립요건으로서 범죄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 및 책임의 세 요건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음.

1990년에는 오랫동안 구상해왔던 <행위개념의 골자>를 발표하셨음. 즉 종래 택일관계에서 행위개념을 논하는 것을 비판하고 단계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주장하셨음.

■ 주요이력

▲ 학력

- 1950. 6. ~ 54. 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입학
- 1954. 4. ~ 57. 3.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입학
- 1957. 3. 법학석사학위(서울대) 취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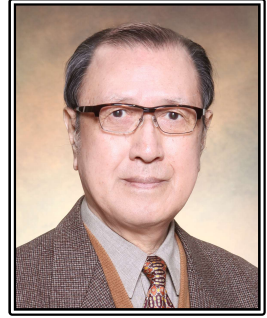
▲ 경력 <수많은 경력 중 현직위주로 극히 일부만 채록하였음>

- 1977. 3. ~ 97. 2.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법과대학) 교수
- 1977. 12. ~ 1987. 3. 한국 형사법학회 회장
- 1981. 12. ~ 1984. 2. 성균관대학교 법정(법과)대학장
- 1984. 3. ~ 12. 독일 막스 플랑크 외국국제형법 연구소 형법연구
- 1985. 6. 법무부 형사법개정 특별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장
- 1995. 7. ~ 현재.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 1996. 7. ~ 9. 독일 겐팅겐 대학 객원교수
- 1996. 8. ~ 98. 8. 학술원 인문사회과학부 제4분과(법학) 분과 회장

1997. 3. ~ 현재.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2011. 8. ~ 13. 8. 학술 인문 사회과학부 회장

▲ 저서 및 논문

형법각론 (상) 법문사 1965
新稿 형법총론 (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1978
新稿 형법각론 (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1986
주석 형법총칙 (상) (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1988
주석 형법총칙 (하) (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1990
주석 형법 (Ⅳ) [各則(Ⅱ)] (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1997
목적적 행위론과 형법이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3
형법에 있어서의 목적적행위론 - Hans Welzel의 이론 중심으로 법대학보 제4권 1호 1957
목적적 행위론 법정 1960
형법 제27조와 未遂犯 법정 11월호 1963
형법 제310조에 관한 몇가지 문제 법조 제13권 2, 3호 1964
禁止錯誤와 형법 제16조 경희법학 9 1971
인공임신중절의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단행본 1974
범죄공동설과 행위공동설에 관하여 고시연구 1974
共謀共同正犯의 共同正犯性 백남억박사 환력논문집 1975
과실범의 구조 법학 17 1976
禁止錯誤에 관한 연구 단행본 1976
과실범 형사법강좌(Ⅰ) 1981
禁止錯誤 형사법강좌(Ⅱ) 1984
공범의 구조 형사법강좌(Ⅱ) 1984
형법에 있어서의 행위개념에 관한 시론 박정근박사 화갑논문집 1990
범죄론의 체계구성에 관한 소고 손해목교수 화갑논문집 1993
구성요건該當性和 違法性에 관한 소고 성시탁교수 화갑논문집 1993
위법성阻却사유의 일반원리에 관한 소고 차용석박사 화갑논문집 1994
불능未遂에 관한 연구 학술원논문집 36집 1997
사람의 죽음과 형법 성균관법학 제10호 1999
새 천년을 맞는 한국형법학의 발전방향 법조 1월호 2000
소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소고 오선주교수 정년논문집 2001



이번 수상에 힘입어
용기백배하여 형사법에 있어
학문적인 종점으로 매진하겠습니다.

김대인 총재님, 그리고 이 자리에 왕림하신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 법률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1958년에 시작하여 1997년에 이르기까지 약 40년간 교단에 섰습니다만은
이러한 수상은 처음이어서 어리둥절 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동안 독일과 일본의 문헌을 참고하면서도 결국은 우리 형법전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석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는 작년 10월에 출간된 ‘목적적 행위론과 형법이론’에 수록되어 있습
니다.

물론 아직 만족스럽게 문제점을 모두 풀지는 못하였고, 또 만족할 만한 지점에 도달할
것 같지도 않지만, 이번 수상에 힘입어 용기백배하여 종점으로 매진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2월 16일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金 鐘 源

국민 대통합의 정치를 실천해 온 소신과 독심의 정치인



강 창 희 (姜 昌 熙) 국회의원님

(대한민국 제19대 전반기 국회의장 / 6선 국회의원)

■ 공적사항

강창희 국회의원님은 19대 전반기 국회의장과 6선 국회의원을 역임하시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의정활동으로 대한민국 의회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셨고, 국회의장으로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국회 운영을 통한 새로운 국회상 정립을 위해 진력하였으며 6선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복지 증진, 국가행정체계 확립, 장애인 권익보호, 국가과학기술 진흥 등을 위해 크게 공헌하심.

의원님은 1983년 11대 전국구 의원으로 당선한 이래 12대, 14대, 15대, 16대, 19대 국회의원(대전 중구)까지 6선 국회의원을 역임하셨음.

2012년에는 19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취임하여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국회 운영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새로운 국회상 정립을 위해 노력하심.

12대 국회 보건사회위원회 간사를 역임하며 1986년 12월, 최초로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여 저임금 근로자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심.

15대 국회에서는 통신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우리나라의 R&D 비용을 대폭 확대시키는데 기여하심.

적극적인 입법 활동으로 복지 국가 건설과 민주주의 신장, 국가과학기술 진흥, 장애인 권익보호 등을 위한 의정활동에 주력하심.

■ 주요이력

▲ 학력

- 1965 대전고등학교 졸업
- 1969 육군사관학교 졸업
- 2004 경남대학교 명예정치학박사
- 2014 충남대학교 명예법학박사

▲ 경력

- 1983 ~ 1985 11대 국회의원 (전국구)
- 1983 ~ 1984 국무총리 비서실장
- 1985 ~ 1988 12대 국회의원 (대전 중구)
- 1992 ~ 1996 14대 국회의원 (대전 중구)
- 1996 ~ 2000 15대 국회의원 (대전 중구)
- 1996 ~ 1997 국회 통신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 1998 ~ 1999 과학기술부 장관
- 2000 ~ 2004 16대 국회의원 (대전 중구)
- 2012 ~ 2014 19대 전반기 국회의장
- 2012 ~ 현재 19대 국회의원 (대전 중구)

▲ 상훈

- 2013 페루 대십자 훈장

법률대상(입법부문)
수상소감문

제7회

강창희 새누리당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가 민의의 전당으로써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헌신하겠습니다

김대인 총재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지난 35년여간 정치 외길을 걸어온 사람으로서, 국회의장을 역임한 의회인으로서
금번 대한민국법률대상의 수상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원로분들께서
전해주시는 큰 상이기에 더욱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앞으로도 의회민주주의 발전을 통하여
대한민국 국회가 민의의 전당으로써 그 소임을 다하고
국가 발전을 올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저의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헌신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성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뜻 깊은 상을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 2월 16일

국회의원 姜 昌 熙 강창희

적법절차와 공정한 사법, 소수자보호에 앞장 헌법재판소와 헌법학 발전에 큰 공헌



이 강 국 (李 康 國) 변호사님

(제4대 헌법재판소장 / 법무법인 한결 고문)

■ 공적사항

이강국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장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소수자의 보호에 대한 신념 또한 투철하여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하는 데 앞장섰으며, 1967년 제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72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된 이래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장을 거쳐 2000년 7월에는 대법관으로 임명되어, 법원행정처장으로 약 1년 10개월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2006년 7월 퇴임 때까지 약 34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원칙에 충실한 깔끔한 재판진행과 깊이 있는 판결로 법원 내·외의 높은 신뢰를 받았고, 사법행정 및 법원의 조직관리에도 정통하셨음.

1977년 독일 괴팅겐대학에서 헌법을 연구하고, 1980년 고려대학교에서 헌법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1988년 헌법재판소법 제정과정에 참여하여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는 등 헌법재판소의 창설에도 깊이 관여하심.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피고인들이나 당사자들의 입장을 주밀하게 살펴보는 역지사지의 자세로 법적 분쟁의 경위와 그들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바를 경청하고 그 과정에서 진실과 정의를 밝혀 주는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당사자들이 승복하는 재판을 하여 왔고, 스스로 고뇌하고 정진하면서 국민을 위한 법원을 구현하는데 노력하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셨음.

특히, 대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검사의 서명날인이 누락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부인, 의료사고시 누구의 과실인지 특정할 수 없을 경우 관여의사 전부의 공동불법행위 성립 인정,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폐암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 국민들의 개명신청권을 폭넓게 인정하여 국민들이 자신이 원하는 이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판결(재판)을 함으로써 적법절차의 준수, 국민의 쾌적하고 행복한 삶에 대한 국가의 배려의무, 의료사고 피해자의 보호,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보호 등 국민들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판결을 남기심.

재판업무의 이론과 실무 및 사법행정의 모든 면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 법조계 내외의 두터운 신망을 받았고, 역지사지의 자세로 소송진행과 판결을 하여 재판당사자들의 승복도가 높았음.

■ 주요이력

▲ 학력

- 1963. 2. 전주고등학교 졸업
- 1967.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 1969. 8.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졸업(법학석사)
- 1980. 9.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 경력

- 1967. 8. 제8회 사법시험 합격
- 1969. 12. 육군 법무관
- 1972. 6. 대전지방법원 판사
- 1977. 6. - 1978. 8. 서독 괴팅겐대학에서 연구(헌법학)
- 1978. 9.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1981. 4. 서울고등법원 판사
- 1983. 2. 대법원 재판연구관

1984. 9.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1986. 9. 법원행정처 조사국장
1989. 9. 법원도서관장
1992. 2.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1993. 6. 제23회 사법시험 2차 위원(헌법)
1993. 9.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1998. 6. 제41회 행정고시 2차 위원(행정법)
1999. 1.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2000. 2. 대전지방법원장
2000. 7. 대법관
2001. 11. 법원행정처장
2003. 9. 대법관 복귀
2006. 7. 대법관 퇴임
2006. 9. 법무법인 태평양 법률고문
2007.01~2013.01 헌법재판소 소장
2013.01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2013.09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석좌교수

▲ 상훈

2006 청조근정훈장

인권존중과 법률소비자 중심의 사법개혁에 철학과 신념으로 헌신



이 상 민 (李 相 珉) 국회의원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대전 유성구 3선 의원)

■ 공적사항

이상민 국회의원님은 2007년 법사위 소위원장으로서 기존의 조서중심 재판을 탈피하고 공판정에서 제시된 증거를 바탕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공판중심주의 도입과 사법기관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긴급체포제도 및 구속적부심제도를 개선하고 형사재판에 국민의 사법참여제 도입과 국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한 민사재판 기록공개 확대 및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때 미진했던 군사법 개혁을 2015년 법사위원장으로 주도하여 법률소비자 중심 사법개혁에 진력해 오셨음..

우리나라 사법제도는 일제치하에서는 식민통치도구로써 기능하였고, 해방 이후의 독

재정권 아래에서는 권력의 시녀 역할을 수행함. 1987년 이후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영역의 변화는 더뎠음. 기득권 집단인 법조계의 강력한 저항과 정부의 의지부족 등으로 번번히 사법개혁은 실패하였음.

하지만 의원님은 2007년 법사위 소위원장으로서는 기존의 조서중심 재판을 탈피하고 공판정에서 제시된 증거를 바탕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공판중심주의 도입과 사법기관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긴급체포제도 및 구속적부심제도를 개선하고 형사재판에 국민의 사법참여제 도입과 국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한 민사재판 기록공개 확대 및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셨음.

이 과정에서 반대하는 의원들을 직접 설득하고, 법무부 및 법원 관계자들을 수차례 만나 협의하고 정치력을 발휘하여 법사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시켰고 본회의에서 직접 제안설명을 하여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음.

또한, 이때 미진했던 군사법개혁에 관한 사항을 2015년 법사위원장으로서는 부대지휘관의 군검찰, 군판사의 인사권 폐지 및 관할관 폐지 등의 법안을 발의하여 추진하고 군사법 개혁에 관한 일부 사항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음.

■ 주요이력

▲ 학력

1971~1974 대전중학교 졸업
1974~1977 충남고등학교 졸업
1977~1981 충남대학교 졸업

▲ 경력

1995~현 변호사
1997~2007 우송대 · 대덕대 · 충남대 겸임교수
2004~2006 국회윤리특위 간사겸 징계자격심사소위원장
2006~200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겸 법안1소위원장
2007~2011 대한장애인드트연맹 회장
2008~2009 국회 미래전략 및 과학기술특별위원장
2008~현 국회미래한국헌법연구회 대표
2008~2012 국회 UN-MDGs포럼/국회 UN-WEF포럼 공동대표
2012~현 국회교통안전포럼 대표
2012~현 사)과학기술정책연구회 이사장
2008~2012 국회 지역균형발전연구모임 공동대표
2012.11~2012.12 제18대 대통령선거 민주통합당후보선대본부 공감본부장

2012~2013 민주통합당 대전시당위원장
2013~2014 국회방송공정성특별위원장
2014~현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2015~현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 상훈

2006~2015 법률소비자연맹 등 270개 시민단체연대 선정 ‘ 2006년, 2007년, 2008년, 2011년도 2013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 ’과 2013년도 의정대상, 2014년 2015년 헌정대상, 2014년 2015년 우수상임위원장
2006~2015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 선정 ‘ 2006년, 2009년, 2010년도 2012년도 2015년도 입법활동 우수의원 ’
2008~2012 과학기술 시민단체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선정 <제17대, 제18대 국회 과학기술 최우수의원>
2010~2015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선정 <2010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 2014년 2015년 과학기술 우수의정상
2007 한국장애인상위원회(서영훈 전 적십사총재)」 선정 <자랑스런 장애인상>
2007 한국납세자연맹 선정 <제1회 납세자지킴이상>
2015 대한민국 참봉사대상 조직위원회(위원장 장태평 전 농림수산부 장관) 선정 <과학기술 발전공로대상>
2015 한국언론기자협회 선정 <2015 모범국회의원특별대상>
2008 대한노인회 선정 <노인복지상>



인권보호와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길을 치열하게 걸어나갈 것을 다짐하며 이 상의 명예가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저에게 귀한 상을 주신 법률소비자총연맹 김대인 총재님과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유성구민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 법조인으로서 법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너무도 크게 경험하였습니다. 올바른 법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 권리를 보호하고 약자를 지키지만 그렇지 않은 나쁜 법은 강자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좋은 법을 만들고 나쁜 법을 고치는 일에 저의 모든 열정을 쏟고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되었고 법사위원장이 되었습니다.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되면 법을 만드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을 줄 알았지만 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새로운 법이 제정이 되면 혜택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기존에 누리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되는 사람도 있기에 좋은 취지의 법안이라 할지라도 많은 반대와 어려움에 처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동료 의원과 정부, 이익집단에 맞서 싸워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끈질기게 매진한 결과 좋은 법들을 만들고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가끔은 외롭고 힘에 겹기도 했지만 많은 국민들이 성원으로 동참하시고 용기를 주셨기에 자부심을 가지고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17대 국회이후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및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인권보호와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사법개혁, 이번 19대 국회에서의 군사법개혁에 이르기까지 2007년 사법개혁 당시부터 현재 법제사법위원장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정의사법개혁에 제 나름의 노력을 좋게 평가해주시고 이렇게 큰 상을 주신 것에 마음이 벅차옵니다.

앞으로도 인권보호와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길을 치열하게 걸어나갈 것을 다짐하며 오늘 주신 이 상의 명예가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늘 정성어린 애정으로 응원해주시고 지지해 주신 유성구민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자부심이 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2월 16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李 相 珉**

법률대상(인권부문) 제7회
수상소감문

박용상 위원장



언제나 스스로의 식견과 지혜가 부족
함을 자각하고 나름대로 분수를 넘지않는
초심의 법학도와 같은 자세를 지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총재님, 대한민국 법률대상 김철수 공동위원장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제가 제7회 대한민국 법률대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언론법 연구를 평생의 목표로 삼아온 저에게 이 상은 남다른 의미를 갖습니다만, 아직
우리에게는 언론의 자유의 진면목을 살리기 위해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디지털화로 인한 정보사회에 진입하였고, 전례없는 자유의 기회와 함께 그로 인한
부작용으로 인해 큰 도전에 처하고 있습니다. 제게 주어진 이 상은 이러한 새로운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분발하라는 충고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법률문화 개선을 위해 25년 헌신해온 법률소비자연맹이 계속 발
전하기를 기원하며, 아울러 법률대상 수상자로서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마다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면서 인사를 대신합니다.

2016년 2월 16일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朴 容 相



제가 하는 일은 전 세계에서 평화, 안보 그리고 민주주의와 법치라는 공통의 가치관을 증진시키는데 있습니다

김대인 총재님,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7회 대한민국법률대상 수상자로 선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나 직업 측면에서 이 상은 제게 의미가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제가 하는 일은 전 세계에서 미국의 이해관계, 평화, 안보 그리고 민주주의와 법치라는 공통의 가치관을 증진시키는데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전파하고, 올바른 법 해석을 지향하며, 재판과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법률인들은 이같은 노력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 집안에서 자랐고, 제 아버지는 제게 법과 정의 그리고 이같이 숭고한 일에 자신들의 삶을 바치는 이들에 대한 깊은 존경을 심어주셨습니다. 제가 하는 일에서도 그 교훈을 적용하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이번 상을 받게 되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번 상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근본적인 원칙 중 하나인 사법정의를 근간으로 두고 있는 강력한 한미동맹의 상징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분들의 일원이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양국을 위해 더 열심히 더 많이 노력하라는 격려의 표시로 이번 상을 받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President Kim Dae-in and distinguished guests and friends of The Good Law, thank you. Thank you for honoring me with the 7th Korea Good Law Award.

Professionally and personally, this award is meaningful to me. As a public servant, my work has been guided by the pursuit of advancing the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interests, peace, and security throughout the world, and shared values of democracy and rule of law.

The legal profession - through their tireless efforts to promulgate democracy, ensure correct interpretation of the law, and resolve disputes peacefully through the courts and negotiations - is an important part of these efforts.

I come from a family of lawyers, and my father instilled in me a deep respect for the law and justice, and for those who dedicate their lives to this noble profession. I try to apply the spirit of that lesson in my work, so I thank you for recognizing me tonight.

I am also honored because I know this award is a symbol of a strong U.S.-ROK alliance, an alliance based on judicial justice, one of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I am honored to be part of the team that strives to strengthen this alliance. I will receive this award as encouragement to work harder and do more for our two countries.

Thank you again for this award.

The arc of the moral universe is long, but it bends toward justice.

- Martin Luther King, Jr.

2016년 2월 16일

주한미국대사 *Mark William Lippert*



미국에 있는 3백만 해외동포를 대신하여 영광스러운 상을 수상하게 되어 더욱 감개무량합니다

오늘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법조계 법학계의 최고 권위 있다는 대한민국 법률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하오며,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님과 대한민국 법률대상위원회의 김철수 교수님을 비롯한 공동대표 여러분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수상소식을 접하고, 2005년 유일하게 미국연방상하원에서 만장일치의 법제정을 통과시켜 매년 1월 13을 "미주한인의 날 (Korean American Day)"로 기념하게 된 일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었고, 이 사건은 750만 이상의 한국계 디아스포라 가운데 기념비적인 일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런 업적을 인정받아 북미에 살고 있는 근 3백만 해외동포를 대신하여 오늘 영광스러운 상을 수상하게 된 것이라 생각하니 더욱 감개무량합니다.

저는 평소 글로벌로 도약하는 한국의 시대적 상황에서 민주주의와 자유경제 산업화라는 두 가지 혁명을 단기간에 이루어낸 것은 한미 동맹 관계와 미래를 내다보는 우리 국민의 도전과 투쟁의 올바른 선택의 결과였다고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미주한인사회는 건국초 5,000여 명의 소수 인구에서 이제 머지않아 300만으로 성장, 미 전체 인구의 1%를 차지할 것이며, 2% 남짓한 유대인 사회와 같이 한미양국의 막강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상을 계기로 본인이 한국에 미국문화박물관도 설립 준비에 있는데 이러한 운동을 더욱 더 가속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글로벌 세계의 시대적 사명으로 대한민국법률대상을 창설하시고 전현직 대통령과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대학총장, 학술원회원님 등 최고의 법률가들을 선정하여 법률가의 노벨상으로 만들어 이끌어 가시는 김대인 총재님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2016년 2월 16일

미주한인의 날 기념재단 설립자 尹 炳 旭

법률대상(법률문화상)
수상소감문

제7회

김기문 회장



법률문화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며 중소기업의 위상 제고를 위해 아낌없이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88년 로만손을 창업하고, 1998년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이사장과 2007년부터 8년간 중소기업중앙회장을 역임하는등 지난 30여년간 최일선에서 국가경제에서의 중소기업 위상제고와 권익 향상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고군분투해 왔습니다.

오늘 명망있는 대한민국 법률대상위원회의 법률문화상이라는 큰상을 부족한 제가 수상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는 320만 중소기업 그리고 약1200만 종사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그 위상 제고가 중요하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가 2015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시장점유율 1위의 우리나라 상품을 보면 67%가 벤처 등 중소·중견기업체로 대기업보다 훨씬 많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중소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다” 라는 것은 자명하며, 우리경제의 근간이 될 중소기업을 보다 발굴,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많은 청년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신기술력을 바탕으로 스타트업기업을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수출동력을 창출하고 중소기업 경쟁력을 끌어올릴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합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그동안 법률소비자운동 등 다방면에서 다양한 법률적 권익 활동을 전개해 헌법이 보장한 주권자로서의 시민의 권리를 일깨워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균형잡힌 대한민국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스타트업 창업을 하려는 우리 신생 중소기업이 보유 신기술의 지적재산권 확보 등 역량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률적, 정책적인 면에서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미력하나마 중소기업의 위상 제고를 위해 참여와 지속적인 활동에 아낌없이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영예로운 법률대상을 주관하신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총재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상소감을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2월 16일

중소기업중앙회 명예회장 金 基 文

